강 헌

도시풍수 2기

#01. 풍수의 인문학 풍수, fengshui 그리고 환경생태학environmental ecology

“한 시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 전도서, *1:4*

진실로 제왕의 도읍한 곳은

자연히 정해 좋은 곳이 있고,

술수로 헤아려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 정도전과 하륜

명리학 풍수학 동양의학

배산임수이라는 명당 신화와 농경사회의 토지사용 효용론

청와대 풍수논쟁

평창동 성북동 압구정동 대치동 목동의 풍수

풍수 風水 Fengshui

장풍 藏風 득수 得水

“바람은 하늘의 생기 물은 땅의 생기

풍수는 하늘과 땅의 생기를 얻는 기법”

– 최창조

“풍수는 상서로운 환경을 선택하고 거기에
조화로운 건물을 짓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간 생태를 규정하고 자연환경을 개념화하는
독특하고 포괄적인 체계”

– 윤중기, <한국에서 문화와 자연 간의 풍수적 관계> *(1976)*

터잡기의 예술-동아시아적 환경지식체계의 유산

공간의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 미학적 요구에 부응

“풍수란 자연환경의 위치를 파악하여

살아 있을 때는 생활하는 장소를 결정하고

죽어서는 육신을 묻을 보다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한

방법론”

– 류홍기,《현대풍수지리 교과서》

서구가 바라본 풍수

“풍수는 이미 세계화되었다”

– Stephan Feuchwang

서구 문명과 기술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계의 자각
생태 및 환경 문제의 대두와 대안 모색
동양문화에 대한 재조명

아직 학문적 정체성의 혼란

학문적 소통의 발아단계
도시계획이나 건축디자인에 실용적으로 적용시킨
연구 지속

19세기 후반 서세동점의 시대
문화제국주의적 관점으로 서구에 소개

비상식적인 미신적 사고
(개발 행위에 대한 부정적 장애물)

중국을 이해하려는 문화적 통로이자 코드

“풍수는 중국 자연과학의 또 다른 이름이다”

– 아이텔, 《풍수:중국의 자연과학원리》 *(1873)*

“풍수는 중국 문화 전체에 걸쳐서
농가, 장원, 마을과 도시들이
특별히 아름다운 자리를 정하는데
이바지한 총체적인 사상체계가 되었다.”

– 니담, 《중국의 과학과 문명》 *(1959)*

1970년대 환경문제의 부상과
동아시아 풍수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 재조명

198~90년대 환경과학 및 친환경디자인의 영역으로 발전

2000년대 도시계획과 디자인 그리고 심리적 웰빙 및
힐링 효과 영역으로 구체화